

독일, 「도로교통법」 개정으로 운전면허·차량서류 등 교통행정 디지털 전환 추진

해당국가	독일	기관(기업)	독일 연방하원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독일 연방하원은 「제5차 도로교통법 개정법」을 통해 운전면허와 차량서류, 주차관리 등 도로교통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

- 독일 연방하원은 도로교통 행정의 디지털화를 확대하기 위해 「제5차 도로교통법 개정법」을 의결하고 운전자·차량 관련 행정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
 - 운전면허와 차량 관련 서류의 디지털화, 디지털 주차관리, 행정기관 간 차량 데이터 교환 등을 제도화해 기존 서류 중심의 도로교통 행정체계를 개선
 -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과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차량·교통 관련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
- 디지털 운전면허와 디지털 차량 등록서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기반 차량·운전자 정보 활용체계를 확대
 - 디지털 운전면허는 기존 카드형 운전면허증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전자 문서로 도입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운전면허 확인과 제시를 지원
 - 차량 등록서류는 기존의 임시적 디지털 활용 범위를 일반적인 전자 문서 체계로 확대해 차량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구축

□ 디지털 주차관리와 행정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해 도로교통 행정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추진

-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차관리와 단속체계를 제도화해 주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교통관리 업무를 지원
 - 디지털 기반 주차관리·단속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 현장 중심의 주차 확인과 행정처리 업무를 효율화
 - 주차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주차공간 운영과 단속 효율을 높이고 주차 탐색 교통 감소와 교통안전 향상 등 도시 교통관리 개선을 지원
- 행정기관 간 차량 데이터 연계와 디지털 정보 활용을 확대해 교통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기반 도로교통 관리체계를 강화
 - 중앙차량등록부 등 차량 관련 행정정보의 디지털 교환과 차량 데이터 조회 기반을 확대해 기관 간 정보 연계와 행정처리 효율을 향상
 - 개정법은 2026년 3월 26일 연방하원에서 의결된 이후 5월 12일 제정되고 5월 18일 연방관보 제142호로 공포돼 도로교통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

※ 출처 : 독일 연방하원(2026.05), Fünf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ßenverkehrsgesetzes und anderer straßenverkehrsrechtlicher Vorschriften